

※ 본 시나리오는 6.25 전쟁 당시 김영환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팔만대장경 수호를 모티브로 하였으나, 등장인물 및 구체적인 상황 등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일부 창작되었음을 밝힙니다.

국보를 보호하라!

임석진

🌀 로그라인

6.25 전쟁 중 故 김영환 공군 장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현명한 결단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했다.

🌀 주제

당신의 뜨거운 애국심과 세계문화유산 수호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 기획 의도

국보 제3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과 국보 제5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

조선 세종 때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넘겨줄 뻔했었고, 몇 번의 화재로 인해 소실의 위기에서도 스님들과 지역주민들 노력으로 건재했으며, 6.25 전쟁 중에 해인사를 점거한 빨치산 소탕 작전에 따른 해인사 폭격 명령으로 일실 또는 소실될 위기가 있었다니 아찔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빨치산 소탕을 위해 폭격 명령을 받고 출동한 故 김영환장군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명령불복종죄를 감수하고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호국보훈 및 문화재 수호 정신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다.

※ 故 김영환 장군은 6.25 전쟁 전공으로 금성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미 비행훈장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으며, 현재 서울 현충원 제1장군-58 묘역에 영면해 있다.

🌀 등장인물

김영환 (남 / 30) 공군대령, 전투기 조종사

장중령 (남 / 28) 전투기 조종사

윌슨 (남 / 32) 소령, 미 군사고문

해설사(여 / 40) 해인사 역사 해설사

그 외 김대위(전투기 조종사) / 강중위(전투기 조종사) / 양철수(전투경찰대장) / 헌병 / 경찰기장 / 빨치산 대장 및 부관과 부하들 / 스님1과 스님들 / 덕배와 아내, 주민들 / 관람객들 등

☞ <대본 : 국보를 보호하라!>

1. 해인사 전경

가야산 자락에 자리한 해인사 웅장한 기와지붕들

2. 대적광전 앞

대적광전 앞마당에 수많은 연등이 걸려 있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줄 서거나 탑돌이 하는 신자들과 일반 관람객들로 붐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무리 관람객을 이끌고 해설하는 해설사

해설사 여기는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대적광전입니다. 해인사를 찾는 신자들은 이곳에서 불공을 드리고, 팔만대장경을 관람합니다. 바로 뒤에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관전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3. 장경관전 앞

사람이 몰려들어 해설사 해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해설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각은 장경관전이라고 합니다. 국보 제52호이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국보 제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1236년에서 1251년까지 총 16년에 걸쳐 총 81,350여 경판으로 조성되었으며, 경판은 자작나무, 삼배나무, 돌배나무 등을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났다가 말려서 만들었으며, 경판을 전부 쌓으면 3,200미터로 2,744미터인 백두산 보다도 높고, 나란히 놓으면 60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관람객1 팔만대장경이 몇 번의 소실 위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해설사 네, 그렇습니다. 조선조 세종 때에 일본의 집요한 기증 요구에 넘겨줄 뻔했었고, 다음으로 해인사에 몇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스님들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무사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도 소실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관람객1 6.25 전쟁 중에도요?

해설사 네, 그러니까 1951년 9월 17~18일 있었던 일입니다.

(암전)

<타이틀 : 국보를 보호하라!>

4. 해인사 정문 앞(해 질 녘) - 자막 : 1951년 9월 17일

기관총으로 중무장하고 경비를 서고 있는 빨치산 경비병
빨치산을 가득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 트럭을 검문 검색한다.
걸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빨치산 대열도 보인다.

5. 대적광전 앞(해 질 녘)

마당에 여러 개의 가마솥을 걸어 놓고 불을 지피는 스님과 주민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스님과 주민들이 주먹밥을 만들고 있고
그 옆에서 스님과 덕배가 빨치산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있다.
주먹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빨치산들.

빨치산1 (뒤돌아보며) 동무, 우리네 언제까지 이리 있어야 하는 기야?

빨치산2 내래 알잖어!

빨치산1 이리 있다가 고향에 못 가는 것 아니네?

빨치산3 (끼어들며) 어제 1중대 3소대 2분대가 마을에 내려갔다가 남조선 군·경
에게 전멸당했어야!

빨치산2 (불만스런) 남조선 아새끼들이 턱밑까지 왔는데 우리네 와 이려고 있네?

빨치산3 여기서 곧 철수 할거라는 소문이야!

빨치산2 철수해서 어디로 가간?

빨치산3 지리산으로 가지 않잖어!

6. 가야산 일대(밤)

군데군데에 나무 움막에 숨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빨치산들

7. 전투경찰대(밤)

가야산과 해인사 폭격을 요청하는 양철수 전투경찰대장

양철수 (영어) 해인사를 점거하고 있는 빨치산 저항이 거세 접근이 어렵다. 즉시 해인사 폭격을 요청한다. (사이) 알았다. 정확한 폭격지점은 우리 쪽에서 알려 주겠다 이상!

(CUT TO)

해인사 경내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있는 양철수
전투경찰 대원이 덕배 뒷덜미를 잡아끌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대원 대장님, 해인사에서 빨치산에 부여하고 있는 자를 잡아 왔습니다.
덕배 와, 이갑니까? 이거 노이소!
양철수 빨치산에 부여해, 그럼 빨갱이로군!
덕배 (억울한) 지는 빨갱이가 아니라예.
양철수 빨갱이가 아니면 빨치산인가?
덕배 (소스라치며) 아~ 아닙니다, 빨치산이라니예? 말도 안 됩니다.
양철수 그럼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봐!
덕배 어떻게예?

8. 덕배 자택(밤)

덕배, 아들을 사이에 두고 아내와 누워있다.

덕배 (아들 6세 머리 쓰다듬으며) 니, 나 없이도 우리 알라 잘 키울 수 있제?
아내 (보며) 뜬금없이 그기 무신 소리꼬?
덕배 (다그치듯) 말해 봐라!
아내 와 그러는데?
덕배 있나 없나?
아내 니 어디 가나?
덕배 아니다.
아내 근데 와?
덕배 (돌아누우며) 암것도 아니다.

아내 싱겁기는 퍼뜩 자라!
덕배 알았다. 니도 언능 자라.

9. 해인사 경내(아침) - 자막 : 1951년 9월 18일

빨치산 수백 명이 경내에서 일제히 구보를 한다.

10. 제1전투 비행단 사천기지(아침)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공군 정찰기

11. 제1전투 비행단 조종사 대기실(아침)

장중령 등 조종사 3명이 출격 대기 하고 있는데, 김영환 대령이 들어온다.

장중령 (일어나) 편대 차렷, 필승!
김영환 (경례 받느) 필승, 쉬어!
장중령 편대 쉬어!
김영환 다들 준비됐나?
장중령 편대장님, 명령만 하시면 어디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김대위 빨치산은 한 놈도 살려 보낼 수 없죠!
강중위 그럼요!
김영환 (만족스런) 좋다.

12. 대적광전 앞(아침)

여러 개의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덕배
아궁이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라 가마솥을 삼켜버린다.
아궁이 옆에 생소나무를 바라보는 덕배, 스님1이 다가온다.

스님1 (생소나무 보며) 이건 와요?
덕배 태울라고요!
스님1 연기가 많이 날긴데.

덕배 그라픈 됐습니더.
스님1 뭐가 됐다는 겁니까?
덕배 스님은 몰라도 됩니더.

활활 타는 아궁이에 생소나무를 넣기 시작하는 덕배
아궁이에서 하얀 연기가 일어 하늘로 올라간다.

13. 해인사 상공(아침)

정찰기장, 망원경으로 해인사에서 올라오는 하얀 연기와 각 전각 마당에서 마치 기
어가 맞물려 돌아가듯 구보하고 있는 수백 명의 빨치산을 확인한다.

14. 제1전투 비행단 사천기지(아침)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4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한다.

15. 대적광전 앞(아침)

아궁이마다 생소나무를 미친 듯이 쭈셔 넣는 덕배
흰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운다.
갑작스런 연기 습격에 달려오는 빨치산 부관

부관 (덕배를 끌어내며) 동무, 지금 뭐 하는 기야?

버티며 미친 듯이 계속 생소나무를 아궁이에 쭈셔 넣는 덕배

16. 해인사 상공(아침)

정찰기장, 김영환 대령(전투기 편대장)에게 폭격지점을 알려준다.

정찰기장 목표물, 북위 35 48 04.83 동경 128 05 56.80 반복한다. 목표물 북위 35
48 04.83, 동경 128 05 56.80 이상
김영환 수신완료!

좌표를 찍고 목표물을 확인하는 김영환 대령
목표물이 해인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혹스러워한다.

장중령 2분기 목표물 확인!
김대위 3분기 목표물 확인!
강중위 4분기 목표물 확인!

17. 광적대전 앞(아침)

빨치산 부관, 덕배를 끌어내고 다급하게 스님1에게 소리친다.

부관 이봐 중 동무, 당장 생소나무를 꺼내라우!
스님1 송진에 불이 붙어서 이제 잘 타는데예.
부관 이 간나 새끼야, 빨리 꺼내지 못 하가서!

스님1, 마지못해 불붙은 생소나무를 아궁이에서 꺼낸다.

18. 해인사 상공(아침)

전투기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는 해인사를 내려다보는 김영환 대령과 편대원

장중령 2분기 목표물 조준 완료!
김대위 3분기 목표물 조준 완료!
강중위 4분기 목표물 조준 완료!
장중령 (다급하게) 편대장님, 폭격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목표물
통과합니다.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에 긴급히 명령한다.

김영환 (단호하게) 각기는 나의 뒤를 따르되 나의 지시 없이는 일체의 공격을
중지한다.
장중령 (이해 못 하는) 편대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영환 다시 반복한다. 내 명령 없이는 어떠한 폭격이나 기총소사도 금지한다.
알겠나?

장중령 편대장님!

김영환 대령의 명령에 따라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 전투기 편대
김영환 대령이 탄 1번기를 필두로 2·3·4번기가 굉음을 내며 대적광전 용마루를
스치듯 지나간다.

(전투기 시선에서) 전투기 출몰로 허공에 총을 쏘거나 숨는 등 허둥대는 빨치산들.

장중령 (따지듯) 편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김영환 (굽히지 않고) 우리는 해인사를 폭격은 하지 않는다.

장중령 편대장님, 해인사 폭격이 우리 임무입니다.

김영환 다시 명령한다. 우리는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는다. 알겠나!

편대원 (동시에) 수신 완료!

19. 전투경찰대 진지(아침)

양철수 대장, 망원경으로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를 관찰하는데,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가 해인사를 스치듯 지나쳐 가야산으로 기수를 돌리는 것
을 본다.

양철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저 새끼들 왜 저래!

대원 (보며) 왜요?

양철수 왜, 해인사 폭격을 하지 않는 거야!

대원 다시 돌아와서 하겠죠.

양철수 (망원경을 내리며) 아니야, 폭격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여.

대원 설마요.

양철수 윽슨 소령한테 당장 전화 연결해!

대원 네, 대장님!

20. 대적광전 앞(아침)

전투기가 지나가자, 빨치산들이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부관 (덕배에게) 이 남조선 첩자, 간나새끼!

빨치산 부관, 덕배에게 권총을 발사한다.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덕배
스님1, 달려가 덕배를 부축한다.

스님1 (덕배를 안고 부관에게) 와 이럽니까?
부관 (스님1에게) 치우라우!
스님1 (덕배에게) 처사님!
덕배 (피를 토하며 힘겹게) 지는예, 빨치산이 아니...

덕배,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숨을 거둔다.

스님1 (덕배 눈을 감겨주고/합장하며) 관세음보살! 그렇지 예, 처사님은 빨치산
이 절대 아니지 예!

21. 가야산 상공(아침)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는 가야산에 은신해 있는 빨치산들을 향해 폭격하고 기총
소사를 한다.

22. 가야산 빨치산 진지(아침)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의 폭격으로 나무 움막이 초토화되고 빨치산들이 공중에
뿔뿔이 나뉘거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기총소사에 줄줄이 쓰러진다.

23. 제1전투비행단 사천기지(아침)

윌슨, 양철수 전투경찰대장과 통화하고 있다.

윌슨 (영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말하십시오.
양철수 (소리/영어) 빨치산 놈들이 득실거리는 해인사는 폭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폭격하고 있단 말이오.
윌슨 (영어) 그럴 리가 없소.
양철수 (소리/영어) 당장 확인해 보시오.
윌슨 (영어) 알았소.

24. 제1전투비행단 사천기지 활주로

김영환 대령 전투기 편대가 차례대로 착륙한다.
전투기에서 내린 김영환 대령과 편대원
월슨 소령이 헌병과 함께 다가온다.

월슨 (헌병에게/영어) 모두 체포하라!
장중령 (영어) 왜 이러시오?
월슨 (영어) 명령 불복종으로 체포한다.
김대위 명령 불복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영환 대령이 두 손을 내밀자, 수갑 채우는 헌병
가볍게 저항하면서도 순순히 손을 내미는 편대원들
월슨 소령, 김영환 대령과 편대원을 데리고 간다.

25. 제1전투비행단 조사 대기실

김영환 대령과 김대위, 장중위가 의자에 앉아 있다.

장중위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받아야 해요?
김대위 장중위, 편대장님 계신다. 조용해라!
장중위 해인사 대신에 가야산에 은거한 빨치산을 모두 박살 냈잖아요.
김대위 해인사 폭격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장중령, 조사실에서 나온다.

장중령 (화난) 이 자식들이 나를 뭘로 보고...
김대위 (장중령에 다가가) 중령님한테도 빨치산하고 내통했냐고 물어요?
장중령 (김대위에게) 야, 우리가 빨치산하고 내통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장중위 (억울한) 씨발, 우리가 토벌한 빨치산이 얼마인데.
김대위 우리가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았다고 양철수가 길길이 날뛰답니다.
장중위 (따지듯) 그 양반은 우리 도움으로 큰 공을 많이 세웠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김대위 난들 알겠니?
장중령 편대장님, 이거 수습이 쉽지 않겠는데요.

김영환 (차분하게) 걱정마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헌병이 조사실에서 나온다.

헌병 김대령님 들어오세요.

김영환 대령, 헌병을 따라 조사실로 들어간다.

김대위 (장중령에게) 편대장님이 왜 해인사 폭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중령님은 아는 거 있어요?

장중령 글썸다.

강중위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김대위 편대장님께서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빠치산 토벌에 적극적 이셨잖아요.

장중령 사찰이었고, 스님들과 민간인도 많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김대위 (걱정스런) 저놈들, 진짜로 우리를 징계할까요?

강중위 헌병대 김중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빠치산하고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느라 혈안이래요.

김대위 에이, 설마 아니겠지!

26. 제1전투비행단 조사실

김영환 대령, 윌슨 소령 앞 의자에 앉아 있다.

윌슨 (영어) 왜 해인사를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영어)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소!

윌슨 (영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환 (영어) 거기에는...

윌슨 (영어) 빠치산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내통했습니까?

김영환 (단호하게/영어) 아니요.

윌슨 (영어) 그런데 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겁니까?

김영환 대령, 길게 한숨을 내쉬고 윌슨을 바라본다.

윌슨 (다그치는/영어) 내 질문에 대답하시오. 김 대령!

김영환 (차분하게/영어) 그곳은 사찰이오.

윌슨 (영어) 수백 명의 빠치산이 점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영환 (영어) 거기에는 백여 명의 스님이 있고, 다수의 민간인도 있소, 그리고 또...

윌슨 (영어) 그리고 또 뭘니까?

김영환 (영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오.

윌슨 (영어) 문화재요?

김영환 (영어)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들어 보셨소?

윌슨 (영어) 팔만대장경!

김영환 (영어) 그렇소.

윌슨 (영어) 팔만대장경이 국가보다 중요합니까?

김영환 (영어) 팔만대장경이 국가보다 중요하지는 않소, 그러나 빨치산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했소.

윌슨 (영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영환 (차분하게/영어) 빨치산은 언젠가는 몰려갑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일군에 항복한 적이 있소, 그리고 영국인들은 인도를 잃더라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소. 팔만대장경도 파리나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보물이오. 그래서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잣더미로 만들 수는 없었소.

윌슨 (영어) 김 대령은 팔만대장경을 본 적이 있소?

김영환 (영어) 그렇소, 오래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소.

윌슨 (영어) 알겠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소?

김영환 (영어) 우리 편대원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 아무런 죄가 없소.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오!

윌슨 (영어) 나가 보시오.

27. 해인사(밤)

빨치산들이 분주하게 짐을 싸고 있다.

부관 (지나가며) 날래날래 서두르라우!

28. 대적광전 앞 막사(밤)

빨치산 부관이 들어온다.

대장 최소한의 짐만 챙기라우!
 부관 그리하고 있음메다.
 대장 오늘 밤 여기를 떠난다.
 부관 대장동무, 떠날 때 여기는 다 불싸지르 갔씨오!
 대장 (어이 없는) 동무, 제 정신네?
 부관 우리 흔적을 모두 지워야되지 않았습네까?
 대장 동무는 여기서 살아 나가고 싶지 안네?
 부관 무슨 말입네까?
 대장 지난번에 전투기가 왜 여기를 폭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네?
 부관 중들도 많고, 대장경도 있고...
 대장 바로 그기야, 근디 여기를 불 싸지르면 중들이 가만히 있겠어?
 부관 목숨 걸고 덤벼 들겠지요!
 대장 또 남조선 군경은 어쩔 것 같네?
 부관 떼거리로 달려 오겠지요!
 대장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어, 없겠어?
 부관 없겠음메다!
 대장 알았음, 판생각 말고 날래 짐이나 싸라우!

29. 요사채(밤)

주지 스님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주지 언제쯤 철수할 것 같은가?
 스님1 오늘 밤에 떠날 것 같습니다.
 주지 각 전각과 암자 경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가?
 스님2 네, 스님, 본사 전각은 물론 각 암자에도 스님과 처사님들을 배치해 사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3 일부 과격한 빨치산은 떠나면서 사찰을 불 질러버리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네.
 스님3 네, 스님.
 주지 장견관전은 인원을 더 늘리게.
 스님1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예, 스님과 처사님 20여 명이 방비를 단디하고 있습니다.
 주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네.

스님1 네, 스님!

30. 제1전투비행단 대기실(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는 편대원들과 김영환 대령
월슨 소령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김영환 대령과 편대원이 일어나 월슨 소령 앞에 선다.

월슨 (영어) 김대령 제외한 편대원은 집에 가도 좋소.

장중령 (영어) 편대장님은요?

월슨 (영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 대기한다.

김대위 (영어) 그게 무슨 소리요?

강중위 (월슨에 다가가) 이봐, 우리가 특별한 빨치산이 열만데 이런 대접을 해!

월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김영환 대령을 본다.

김영환 (엄하게) 장중령, 대원들 데리고 나가라!

장중령 네, 편대장님! (강 중위 잡아끌며) 강 중위 나가자!

강 중위를 끌다시피 데리고 나가는 장중령

김 대위도 월슨을 한번 노려보고 장중령을 따라 나간다.

김영환 대령 어깨를 툭 치고 나가는 월슨

31. 해인사(밤)

칠후 같은 어두운 밤

빨치산들이 배낭을 메고 해인사를 빠져나간다.

32. 제1전투비행단 월슨 사무실

월슨,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모자를 쓰는데 장중령이 뛰어 들어온다.

장중령 (영어) 월슨 소령, 소식 들었소?

월슨 (영어) 간밤에 해인사 빨치산이 모두 도망간 거요?

장중령 (영어) 그렇소!

월슨 (영어) 빨치산이 도망간 거지 모두 사살된 것은 아니지 않소!

장중령 (영어) 그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동해서 위협을 하니까 놈들이 서둘러 도망간 건 사실이잖소?

월슨 (웃으며/영어) 장중령님, 나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소!

장중령 (영어) 다른 관점ियो?

월슨 (영어) 그렇소, 내가 좀 알아봤는데, 해인사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귀중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소! 김영환 대령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오.

장중령 (영어) 그럼 편대장님을 풀어주는 겁니까?

월슨 (영어) 그렇소.

장중령 (기분 좋은/월슨에게 경례한다) 필승!

월슨 (미소 지으며 경례 받는) 필승!

장중령 (손 내리고 끌어안으며/영어) 고맙소.

장중령, 월슨에게서 떨어져 출입문을 열고 절도있게 월슨을 안내한다.

33. 제1전투비행단 대기실

김영환 대령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월슨 소령과 장중령이 들어온다.

월슨 (영어) 김대령, 징계를 위한 대기를 해제합니다.

월슨, 김영환 대령에게 악수를 청한다.

김영환 (월슨과 악수하며/영어) 고맙소, 월슨 고문관!

월슨 (영어) 아니오, 당신은 아주 소중한 인류 문화재들을 지켰소. 당신 조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당신이 아주 훌륭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오. 이걸 진심이오.

김영환 (영어) 월슨 고문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오.

장중령 편대장님, 잘됐습니다.

김대위, 장중위가 뛰어 들어와 거수경례하고 김영환 대령을 끌어안는다.

(암전)

34. 해인사(현재)

해설사가 관람객들 앞에서 해설하고 있다.

해설사 그때 김영환 대령이 명령에 따라 폭격을 감행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국보 제32호이면서 유네스코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과 이를 보관하고 있는 국보 제52호 및 유네스코세계유산인 장경관전은 모두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관람객 (손들고) 그 뒤 김영환 대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설사 그 후, 김영환 대령은 장군으로 승진하고 6.25 전쟁 전공을 기려 금성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미 비행훈장에 이어 2010년 정부는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으며, 현재 서울 현충원 제1장군-58 묘역에 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호국영령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설사가 설명을 끝내고 고개를 숙이자, 관람객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인다.

그때 해인사 범종 소리가 사찰 경내에 울려 퍼진다. <끝>